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경전이나 고전의 첫 문장은 종종 핵심 테마를 선보인다.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가 각각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하느님의 아들’, 혹은 ‘하느님 자체’로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처럼, ‘논어’ 또한 첫 구절에서 공자의 세계관을 응축한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이 두 문장은 우리에게 ‘하늘천 따지’ 만큼이나 익숙하다. 흔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로 번역된다.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문장을 끊임없이 재해석한다면 학습과 교육, 인간적 기쁨에 대한 공자의 복합적인 사유를 드러낼 수 있다.

우선 ‘논어’의 ‘첫 두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보면 보면 어떨까. 그 질문은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는 어떤가. 그런 관점은 에피쿠로스학과 정도는 아니지만 쾌락을 중시하는 성현 공자를 드러낸다.

공부와 우정. 공자는 수많은 즐거운 인간 활동 중에

공자의 첫 물음,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다

서 이 둘을 짚었다.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도한(亦)은 돈이건 권력이건 다른 기쁨·즐거움의 존재를 암시한다. 공부와 우정은 인간 감정을 충분히 포괄할까. 대표적일까. 또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학문은 내면의 충족에서 오는 내적·지적인 기쁨, 우정은 관계 속에서 얻는 외적·일상적 즐거움을 준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긴장 관계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공자는 ‘단언’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가’라는 물음으로 물음에 답했다. 왜일까. 흔히 강조를 위한 수사로 해석되지만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 질문은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제자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해 그들이 스스로 사유하도록 유도한다. 또 ‘완벽주의자’ 공자는 자신의 학문과 교유의 체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확신을 유보했는지 모른다.

‘학이시습(學而時習)’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공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학습과학에서 강조하는 ‘간격 반복(spaced repetition)’의 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또한 ‘학이시습’은 지식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는 현대 자기계발 연구의 통찰과도 일치한다. 서양의 ‘이론과 실천(theory and practice)’ 논의와도 연결된다. 공자는 2000년을 앞선 인물이었다.

“유봉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는 단순히 ‘벗이 멀리서 찾아온다’는 의미일까. 이는 “내게도 벗이 있어, 그 벗이 먼 길을 자발적으로 찾아와 준다면”이라는 상상적 가능성일 수 있다. 공자·석가모니·소크라테스·예수

에게 동등한 ‘벗’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제자·사도·추종자만이 있었을 뿐이다. 우정의 부재는 종교 형성의 구조적 조건인 것이다. 인류의 스승들은 친구가 없지 만 제자를 벗처럼 대한다. 자공이나 안연은 ‘친구급’ 제자였다.

그렇다면 벗은 왜 ‘멀리서’ 오는가?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는 학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만큼 학문은 공자에게 중요했다. 공자의 상상 속의 친구는 공자에게 잠시 공부를 멈출 명분을 주었을 것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공자의 명성이 널리 퍼져 동지들이 멀리서 찾아오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공자 타파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한·중 관계에서 공자를 무시할 수 없다. 공자는 오늘날 동아시아의 문화·정치 구도와도 연결된다. ‘공자는 한국인’이라는 말은 본래 ‘공자가 동이족 출신일 수 있다’는 학설에서와 전된 것이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상식’이 됐다. 공자가 한국인일 수는 없지만 그를 ‘한국적 존재’로 재해석할 수 있다. 공자에 대한 한국의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압도적이라면 말이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무시 못할 국력을 길러왔다. 유교, 불교와 그리스도교까지 함께 뿌리내린 문화의 다층성 또한 우리 문화력·창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공자의 질문은 오늘도 유효하다. “무엇이 즐거운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社說

역사박물관 등 3대 시설 광주 유치 응답하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국립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분관은 광주시가 수년 동안 유치에 공을 들인 이른바 문화·역사·지식 ‘3대 사설’이다. 광주시민들은 3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문화수도 광주’를 완성하는 길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배려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 3대 시설의 건립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비가 반영돼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용역비는 국립현대미술관 5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억원, 국회도서관 1억5000만원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지만 정부는 용역을 거쳐 건립 예정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호남권 건립은 기정사실이다. 청주관·진주관·대전관 등 권역별로 있는데 호남에만 분관이 없기 때문인데 어디에 건립하느냐가 관심사다.

전주시와 여수시 등이 유치전에 나섰지만 광주시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매

입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광주비엔날레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문화 허브 기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명분과 경쟁력에 있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역사박물관은 과거 정부가 광주 이전을 약속한 사안으로 미이행 과제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유치 가능성이 높다. 국회도서관 분관도 호남권 내에서 유치 경쟁이 있지만 연구기관 밀집도 등을 고려하면 광주가 최적지라고 할만 하다.

용역비가 반영된 만큼 유치의 첫 발은 뻗었다. 그동안의 유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용역단의 마음을 사로 잡는 일이 남아 있다. 광주시민들은 문화·역사·지식 인프라의 삼각축을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정부의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의 열망에 정부가 응답하길 바란다.

혈세 낭비 지방의회 해외출장 철저 수사해야

경찰이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 하는 것은 고질적인 혈세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시 동·서·광산구 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해외 출장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와 광주 3개 자치구 의회 직원들과 여행사 대표 등을 일진해 혈세 낭비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와 전남 15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남·북구 의회와 전남 7개 시군 의회는 권익위 수사 의뢰가 없어 수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출장비 부풀리기를 통한

혈세 낭비 사례는 비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장비 부풀리기 사례를 보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물론 예산으로 입장료와 가이드비 등 기타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 혈세로 부풀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의원들의 일상이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외 출장을 취소하는 지방의회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와 고흥군의회는 편성해 둔 예산을 반납했고 여수시의회는 올해출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고질적인 문제다. 과거에도 혈세 낭비 외유 출장이 문제가 되면 잠깐 수그러드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낭비된 혈세를 환수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기 고

‘청렴 명찰’에 담긴 해남군의 약속



명현관
해남군수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은 ‘청렴’이다. 청렴하지 않은 행정은 아무리 정교한 정책도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민선 7기부터 현재의 민선 8기까지 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남군수로 재직하며 원칙으로 삼은 기조이기도 하다.

공정과 공평, 공개가 청렴의 3대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단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행정의 모든 영역에 관통하는 해남군정의 철학이며 실천의 기준이다. 이 원칙을 행정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해남군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중에서도 ‘청렴 명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처럼 여겨왔다.

이를 위해 고안한 것이 청렴 명찰이다. 해남군 행정의 얼굴인 셈이다. 해남군의 모든 직원은 지금 자신의 가슴에 청렴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데 이 명찰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자부심이기도 하다. 주민들께 공직자

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라는 다짐을 담고 있어서다.

전 직원의 청렴 명찰 달기는 단지 지시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부터 모든 행사와 회의, 현장 방문할 때마다 명찰을 차고 가고 있다. 군수인 내가 솔선해 청렴 명찰을 달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어서다.

특히 우리 직원들에게 청사 밖이라도 공무 목적으로 외부에 나갈 때에는 명찰을 반드시 달도록 지시했다. 청렴은 군정 안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일상적으로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해남군만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명찰 속 이름 하나하나가 군민의 신뢰를 모으는 ‘행정의 얼굴’이 된 것이다.

이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왔고 다양한 군정을 추진해왔지만 그 모든 기반에는 ‘청렴’이 있었다. 군정의 기본 전제 역시 공정, 공평, 공개의 3대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

공정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편법과 특혜를 배제한다. 또 공평은 과정과 결과의 형평성을 살피는 행정이다.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적재적소에 행정의 손길이 닿게끔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두터워진 주민들의 신뢰는 해남군의 정책 효과를 더욱 배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세 가지는 나와 해남군 전 직원이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실천이 큰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렴은 거창한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반복되는 실천이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 청렴 명찰을 다는 일, 사소한 부분도 스스로 돌아보며 바른 기준을 지키는 일,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일 같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이고 이어질 때 진정한 청렴 조직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군수직을 수행한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말보다 실천’으로 청렴을 이끌겠다고 다짐해 본다. 군수가 먼저 나서야 직원들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착용하는 청렴 명찰 하나가 그 출발선이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책임감 있는 조직 문화를 통해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 있을 것이다.

기 고

자연의 언어에 귀 기울이자



김창석
수필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주의 시인 헤르만 헤세는 “자연은 모든 형상을 담은 언어이며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상형문자”라고 했다.

오늘날 자연 과학이 고도로 발달 했음에도 우리들은 세계를 진실되게 바라 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길들이 있지도 않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과는 반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옛 사람들은 자연이 지닌 매혹적인 상징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과 이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들보다 더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데가 있으며 자연을 더없이 맑게 읽을 줄 알았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과 자연의 도처에 존재하는 풍요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다양한 사물들을 보고 기뻐하는 감성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인간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연의 언어를 어

떤 식으로라도 해석하고 싶어하는 충동, 아니 그보다 그 언어에 화답하고 싶어하는 충동에 빠지게 되었다.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뒤에는 통일성이라는 성스러운 요소와 조화라는 선한 것이 은밀하게 숨어있다. 인간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많은 것들이 모태인 자연 안에서 태어나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온갖 피조물을 만들어 낸 창조주를 느꼈다.

그리고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비친 최초의 여명과 그것이 간직한 비밀을 알고 있는 세계로 되돌아 가고 싶다는 근원적인 충동을 늘 간직해 왔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술의 뿌리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성 안에서 융통성을 찾고 싶어 하던 마음에서 너무도 멀어진 것만 같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 자연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과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이 안내해 주던 길들에 감사하며 더 깊은 상상력을 키워 간다.

사람들은 눈이나 신체와 다른 감각을 통해서 자연의 한 부분을 체험한다. 그때마다 자연의 매력에 이끌려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속에 계시되어 나타난 형상들에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정처럼 정교한 무늬가 짜인 나비의 날개를 보고도 경탄을 감출 수 없다. 그 날개 가장자리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선들이 무수하게 그려져 있으며 마치 형형색색

의 보석들을 박아 넣은 듯한 무늬가 있다.

그 무늬 속에 새겨진 감미롭고 매혹적인 문양과 장식을 보라. 또한 그 다양한 색깔들이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미묘한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라.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자연을 보고 경이롭게 여김으로써 자연속의 모든 것들 즉 나비와 풍뎡이, 구름, 산, 강 등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대상들의 형체가 되었다.

그것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일부이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보는이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연을 바라볼 때에 명료한 감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친숙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노래는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그 노래에 응답해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자연의 음률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연의 신비한 세계를 그저 겹고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자연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1978년10월 5일 선포된 우리나라 자연보호헌장 그 전문은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로 시작된다.

그로부터 47주년을 맞는 지금 자연은 온전히 숨쉬고 있으며 인간으로부터 경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無等鼓

후회 없는 삶은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아간다. 말실수를 하거나 뜻하지 않게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다. 어쩌면 실수는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수를 할 때에는 흔히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를 떠올리며 자기합리화를 한다. ‘나는 실수한다. 고로 존재한다.’

후회의 감정은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경우 크게 다가온다.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부모님께 좀 더 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다. 김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에는 후회의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 했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

시 누군가에게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한밤중의 친위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려 했다가 영어의 몸이 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권력에 취해 왕처럼 행세하고 임기를 더 연장하려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함께 법정에서 서게 된 그들은 계엄의 밤을 후회하고 있을까.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감옥 속에서 알게 된 것을 그 때도 알았더라면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후회의 감정은 성찰을 통해야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잘못 된 행위는 스스로 책임하는 자책의 순간을 거쳐 참회에 이르러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상황 인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크게 다른 것 같다. 김건희는 특검에 출두할 때 “제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리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고, 윤석열은 “이재명 정권은 1년을 채 넘기가 힘들 것”이라 했다 한다. 성찰 없는 말들은 공허하고 현실성 없는 믿음은 맹목적이다.

/유재만 제작총괄국장 jkyou@

후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